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 연구 -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이승리(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디지털 성범죄는 매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공간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 등에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체적인 성격상 디지털 범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퍼진 영상이 빠르고 쉽게,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실명 대신 ID를 사용함으로써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왜 영상을 올렸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 범죄에 대해 낮은 죄책감을 유발하며 사이버 공간 안에 모인 가해자들은 디지털을 매개로 더욱 조직화되기 쉽다. 게다가 해외 플랫폼은 국내 수사와 당국의 규제에 제대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범행 도모에 용이하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건수는 2018년보다 2019년에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들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제정되지 않거나 그동안의 범죄 처벌 수위를 보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과 미성년자로 나타나는데 가해자의 처벌을 놓고 사법부의 상당수가 남성 중심으로 범죄를 판단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범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 해 초,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안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며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n번방 사건'은 1번부터 8번방까지 각 방마다 다른 성 착취물을 생성하여 공유한 범죄 사건을 말한다. 해당 사건은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을 매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며 성을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텔레그램은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성 착취물을 공유한 공유자가 26만 명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n번방은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범행을 도모했던 것으로 나타내는데 피해자인 여성과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제작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거부할 시 신상을 유출한다며 협박하며 피해 영상물을 유포하였다.

'n번방 사건'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추적단 불꽃'의 취재를 기점으로 <한겨레>와 <국민일보>가 기획 보도에 나서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방송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처벌,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국민 청원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유력한 용의자였던 n번방의 운영자 '박사'가 검거되면서 언론의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n번방 참여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운영자 신상 공개’ 등의 관련 국민 청원이 20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였으며 ‘n번방 사건’이 대중에게 공론화되었다. 결국 국민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게 된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였고 지난 5월 통과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언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신상 보도를 중심으로 그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단독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하듯 보도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포토라인에서 한 언행에 초점을 맞춰 연일 보도하였고 시민들은 “누가 그에게 서사를 부여했는가.”라며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어느 샌가 사회적 약자의 인격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중하기 보다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관심과 비난으로 보도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언론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며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은 미디어가 이슈에 관하여 이미지와 어휘를 선택할 때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언론이 어떠한 방향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시선과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대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매체 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한다. 미디어가 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은 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단어와 뉴스 구성 선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이슈에 대한 담론 형성과 공론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한다.

프레임 이론(Frame Theory)는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이해의 과정, 즉 경험의 조직화 과정으로 고프만에 의해 주창되었다. 사람은 사물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해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준거 틀이 상이하며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와 관점을 이용하여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말하자면 미디어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과 이에 따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의제를 특정한 측면을 선택하여 두드러지게 강조하거나 보여주지 않은 측면은 배제함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대중의 지각과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언론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보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미디어가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와 내용을 어떤 프레임을 채택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실질적으로 언론의 보도 이후 국민 청원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인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공론화하는데 언론이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의 보도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공중의 관심도 집중하였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사건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운영자들이 체포된 이전과 이후 국내 주요 신문의 보도 수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사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 선택이 상이할 것이라고 된다. 따라서 주요 중심이 되는 사건을 분류하여 해당 국면에 따라 프레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집단이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어떤 프레임을 채택하여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와 쟁점

####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전자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확장되었다. 범위가 넓어진 만큼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유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전적으로 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 추행과 같은 범죄들이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 개인의 신체와 인격,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성폭력 또는 온라인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온라인이라는 용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으로 범죄를 한정짓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자주 사용되던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음란물이란 용어는 2010년에 들어 온라인 성폭력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최소운·한민경, 2020). 그러나 2015년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폐쇄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때부터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민간단체인 ‘소라넷 아웃 프로젝트’는 ‘디지털 성범죄 D.S.O(Digital Sexual Crime Out)’으로 변경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컴퓨터,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이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모든 행위로 정의되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으로 피해를 주는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음유나 암시를 통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김수아·장다혜, 2019).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제작, 유포, 소비의 행위 그리고 젠더 폭력성과 범죄성을 띠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유사 개념으로 혼용된다.

D.S.O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별하며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기기와 저장매체 등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성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동의하지만 소지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유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집단 성폭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유포는 개개인과 불특정 다수로 구분한다. 유포가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집단 성폭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러한 성폭력을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성 착취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은 자유의사에 대한 기준을 두고 남성 중심으로 정의된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법사위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본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동의라 볼 수 있다는 지점들이 암묵적으로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 착취라고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주제가 심각한 신종 범죄임을 주지하고자 하며 제도적 차원과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자 디지털 성범죄로 명명하고자 한다.

## 2. 디지털 성범죄의 쟁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범죄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 이유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유발되는 낮은 죄의식과 책임 의식의 결여, 적발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의 결과를 목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인식하게 된다. 더욱이 영상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범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매체적인 속성을 고려하자면 피해 영상물이 유통이 빠르고 2차·3차 이상으로 재가공 되기 쉬우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영구히 한다. n번방 사건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을 매개로 돈을 거래하는 상업성을 띤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국가 수사를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성을 매개하는 범죄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제작된 영상물들이 성인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을 소비하던 소비자들 자신이 돈을 내고 성을 산다는 것이 이전 성인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을 사고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자-유포자-소비자로 구분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볼 때 각 지점들이 모호하게 걸쳐있거나 유연하게 변동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해당 범죄가 조직화되어있고 남성 중심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과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현실에 비해 그저 가상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사회와 사법부가 치부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준비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법 절차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과 범죄는 몇몇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제대로 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며 무엇보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들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피해 대상이 되는 여성과 미성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15년 이상이지만 한국은 3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며 이는 재판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이 가지는 기술적인 특성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n번방 사건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n번방 사건의 공론화 과정

공론화란 사전적으로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갈등이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하버마스(Harbermas, 2004)는 공론장을 유럽의 커피하우스, 살롱 등과 같은 독서 공중에서 찾았다. 이들은 도서와 신문 등을 활용하여 비판적이고 개방된 의견을 사적인 공간에서 나누었다. 특히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자유와 이상 같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에 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윤선희, 2015). 따라서 공론이 이루어지는 곳은 정치적 생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공적 토론의 포럼을 제공한다(장명학, 2003). 다시 말해 공론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것을 선행으로 한다.

18세기 부르주아 공중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또는 도서 등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와 논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일반 시민 사회와 매체 간의 의사소통이 교란되거나 부재할 수 있고 이는 곧 공론장의 해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그 과정에서 언론이 스스로 권력을 집단화하며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이 해체된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언론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이 정치권력과 자본에 있기 때문에 지배된 대중 매체의 수동적 공론장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은 일반 대중과 새로운 의사소통을 창출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프리드랜드(Frieland, 2001)에 따르면 이상적 공동체는 생활 체계와 유사하게 상호 주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속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한다. 말하자면 참여와 속의를 기반으로 하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또 다른 대안적 공동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적 의지와 형성, 의제를 공식적인 영역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참여와 속의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동이 공론의 의미를 중요하게 만든다.

n번방 사건의 경우 지난 해 11월 25일 <한겨레>의 기획보도로 언론의 보도되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해당 이슈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1월,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 3월 유력한 용의자였던 운영자 ‘박사’가 검거되면서 언론의 보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다수의 국민이 ‘n번방 사건’에 충격 받고 분노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해시태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에 따르면 ‘#n번방\_본사람도\_가해자’, ‘#n번방\_박사\_포토라인\_공개소환’, ‘#n번방가입자\_전원처벌’과 같은 해시태그의 총 언급량은 약 120만 건이라 밝혔다. 반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국민청원 동의한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적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를 릴레이 할 지인을 태그 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촉구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릴레이 ‘프로젝트 리셋(ReSET)’은 공론화에 힘쓰고자 ‘0번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글과 해시태그를 포스트잇에 적어 공공장소에 붙인 후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동참한 시민들은 화장실,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이를 이행하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활발하게 공유하였다.

국민청원은 온라인에서 공중 여론 형성과 행동의 수단으로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은 2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수의 국민청원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공론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한 공중이 국민청원의 많은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청원 인증샷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결국 시민의 연대와 공중의 목소리 내기가 아래에서 위로 공공의 의제가 가능해지도록 만들고 마침내 정책 의제까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인식과 사고는 이전과 현저히 달라졌음은 틀림없다. 언론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문제나 이슈를 언론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 의제로 확산시켜 이를 정부의 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체를 매개로 하며 달라지고 있고 기존 미디어를 사용하는 공중과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공중은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며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공중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으

로써 공론화 실천에 언론이 중요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기별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공중의 의견에 언론이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n번방 사건을 맞이한 국면에 따라 어떻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제2절 프레임 논의

### 1. 뉴스 프레임

고프만(Goffman, 1974)에 의해 주창된 프레임 이론은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사용하는 기준 틀과 도식이 상이하여 자신의 가치와 관심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프만의 프레임 개념은 ‘해석의 틀’이라 정의되며 어느 사회 또는 조직이 가진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구성원들이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회와 조직 안에 규정된 틀에 의해 의식하고 해석한다고 설명된다. 즉 프레임은 전체적인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 맥락에 따라 의미가 정의될 수 있다.

언론학에서 뉴스가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과 강조의 과정으로 전달 할 때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프레임 이론을 적용하였다. 프레임 이론은 언론이 현실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규정된 의미를 공중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해준다. 말하자면 언론은 사건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 또는 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현실을 구성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은 배제하면서 현실에 대해 언론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사건을 보도하더라도 언론이 가진 고유한 맥락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보도의 이야기 구성 방식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뉴스 수용자에 대한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뉴스 프레임 연구자인 기틀린(Gitlin, 2003)은 뉴스가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선별하고 부각하여 강조하는 방식으로 특정 집단의 가치와 신념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된다고 말한다. 즉 뉴스에 의해 구성되는 현실은 사회 권력,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계급의 의견과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뉴스를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이라고 정의 할 때 공중은 이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인식하며 결국 창은 현실을 구성하는 틀로서 역할을 한다. 이 때 뉴스 제작자와 조직은 현실의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제작자 개인의 가치관, 특정한 집단의 이데올로기 등이 영향을 주어 현실을 재구성하게 된다. 결국 뉴스가 구성하는 현실은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일상화된 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선택과 배제에 전략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기틀린은 뉴스 프레임이 구성한 현실이 사회적 제도에 의해 제시된 현실이자 특정한 관심이나 해석을 야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에게 프레임은 현실을 인식하여 해석하도록 제시되는 선택과 강조, 배제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뒤이어 엔트만(Entman, 2004)은 프레임을 이슈의 구성으로서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보다 현저한 것으로부터 부각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미 실천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프레임은 현실을 아는데 있어서 특정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포함하여 텍스트에서 선별된 부분이 돋보이도록 만든다. 구성된 텍스트는 구성한대로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인 평가와 문제에 대한 해결 제시를 선호하게 한다. 즉 프레임은 이슈의 특정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재구성된 현실의 특정한 부분들을 선택하여 사건을 정의하고, 사건의 원인 진단, 도덕적 평가,

해결 방안으로 결론지으며 텍스트를 보다 현저하게 만든다. 엔트만은 언론이 프레임을 통해 뉴스를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선택과 현저성이 언론에 의해 의제로 선택된 사건이나 이슈에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고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는지 보여준다고 한다. 결국 프레임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고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건에 대한 가치 부여하여 구성된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의 프레임 개념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프레임이 단순히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사회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재현이라는 점에 있다. 프레임은 뉴스 내용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측면을 선택, 강조, 배제의 전략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틀이다. 뉴스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공중에게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프레임 이론은 언론의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사건에 대한 공중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지며 결국 뉴스의 내용과 설득적 함의가 가진 영향력,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개인의 인식과 해석, 의견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해준다.

## 2. 프레임 분석

프레임 분석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뉘어 논의되어 왔다. 사건을 전달하는 텍스트의 형식은 텍스트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은 행사한다(최현주, 2009). 아옌거(Iyengar & Simon, 1993)는 프레임을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구분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을 개별화된 개인 또는 집단의 이슈로 묘사하고,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라 한다.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이 일어난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진단하고 현실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일화적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는 사건보다는 개인의 행위 또는 집단의 특성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주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적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는 사회적 책임을 두드러지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내용적 차원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한다. 뉴스의 주제적 구성 외에도 어휘를 선택하여 강조하거나 배제하는 수사적 장치 등을 사용하여 뉴스 프레임 구성한다(이준웅, 2005). 일반적으로 보도의 제목, 사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수식어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라이스와 투크스베리(Price & Twksbury)는 세 가지의 프레임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인간 흥미 프레임은 사건을 표현하는데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말하고 갈등 프레임은 양극단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 프레임은 개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세멧코와 벨켄버그(Semekto & Valkenburg, 2000)는 인간의 흥미와 갈등 프레임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회 규범이나 가치를 강조하는 도덕성 프레임, 사건의 책임을 묻는 귀인 프레임, 그리고 사건의 결과에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프레임으로 유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프레임은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분석된다. 먼저 귀납적 접근 방법은 언론에서 제시하는 모든 프레임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사설이 '조국 사태' 관련하여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고 국면에 따라 어떠한 프레임의 변화를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최중흥·이호규(2020)는 프레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1차, 2차로 나누어 핵심 주제와 주요 쟁점들을 정리

한 후 텍스트 주제 분석을 통해 책임 귀인 프레임과 해결 방안 프레임을 최종 도출하였다. 이때 책임 귀인을 구성하는 프레임 요소는 대통령/여권의 책임, 조국 본인의 책임, 검찰의 책임 등이 있었으며 해결 방안 프레임은 대통령 결단, 조국 자진 사퇴, 검찰 수사 규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귀납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프레임을 도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하여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역적 접근 방법은 예측되는 프레임을 선정하여 내용 분석 변인으로 정의하고 프레임 변인이 보도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지를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어린이집 CCTV 뉴스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오지은·정혜옥·윤빛나라(2019)의 연구에서는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가져왔고 그 결과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 프레임은 형식적 프레임에서 사건 중심과 사건중심+주제 중심 프레임이 두드러졌으며 내용적으로는 갈등 프레임에서 개인 간 갈등이 나타났고 인간 흥미 프레임에서는 동일한 학대 장면을 수차례 반복하여 보여주거나 학대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성 프레임에서는 교사의 비도덕적 모습을 강조하였고 책임 귀인 프레임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린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연역적 방식은 보도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는 프레임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며 선행 연구를 적용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 제3절 디지털 성범죄와 뉴스 프레임

#### 1. 범죄 보도 프레임의 특징

범죄 보도의 경우 시청자의 흥미를 야기하고 범죄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범죄 뉴스의 양을 조절하여 기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의 단골 소재로 선호된다. 이미 많은 범죄사건 보도에서 선정적인 범죄 보도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선정적 범죄 보도는 언론의 상업화와 속보, 특종 등의 경쟁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욱이 미디어 채널의 증가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 보도가 미치는 채널과 보도의 양은 급증하였으며 공중은 많은 범죄 보도를 통해 범죄가 실제 사건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하며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인 논쟁을 통해 범죄를 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 묘사하거나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국내 언론의 범죄 보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박용규(2001)는 범죄 보도에서 선정적인 보도 방식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보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재영(2015)의 연구 역시 미디어가 강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특정 내용이 실제와 달리 강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보도의 강조와 배제의 전략은 언론사가 지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상업화로 인한 속보와 특종 경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정의철·이창호(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은 선정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탈을 두드러지게 보도한다고 보았다. 또한 범죄를 일으킨 개인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프레임이 존재하며 이혼이나 재혼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아동 학대를 강조함으로써 가해자를 계모와 같은 낙인으로 고정하는 고정 관념 프레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언론의 범죄 보도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박지선·박상조(2013)는 지난 11년간 범죄 보도에 있어 살인과 성범죄, 강도와 절도 등 네 가지 주요 범죄에서 보도 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용자에게 범죄 발생이 실제보다 빈번하게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대중은 언론을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느끼지만 실제로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의 범죄 보도 프레임은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강조되며 범죄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정 관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대중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게 설정하며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느껴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 2. 성범죄 보도 프레임의 특징

성범죄 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언론의 젠더 편향적인 보도 유형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보도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젠더 감수성의 부재가 존재한다(최현주, 2009). 아동 성범죄의 경우, 언론 보도는 법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가해자의 일탈성에 주목하고 해당 범죄를 비상한 범죄 전형으로 만들어 사건을 개인의 결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양정혜, 2010). 또한 ‘미투(#Metoo)’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 보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프레임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적 보도가 나타난다(홍주현, 2018; 전가영·유세경, 2020). 결국 성범죄 보도에서도 범죄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선정적인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의 젠더 편향적인 시선은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된다. 최현주(2009)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언론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성범죄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언론의 보도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차별적인 장치를 통해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언론이 가지는 젠더 감성의 부재는 사회적인 통념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권력형 성범죄라 불리는 ‘미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가해자의 위계에 따른 보도 양상을 살펴본 홍주현(2018)은 인지도에 따라 가해자의 위계를 분류하였고 가해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방송이 사건을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반면 종편은 피해 상황 또는 피해자의 심경, 가해자의 말이나 해동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사 내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프레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건의 보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계’ 프레임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가해자 비난 프레임’도 강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가영·유세경(2020)은 시간과 공간, 내용 프레임을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과거 시간에 머문 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성폭력 사건 자체를 다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이라는 공간 프레임이 전체 보도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미투’라는 사회적인 운동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건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 프레임 역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가리거나 갈등을 양산하는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보도는 젠더 편향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젠더 편

향적인 시각은 가부장적인 시선, 여성 피해자에 대한 비난, 선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언론의 보도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사회적인 통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기존 사회의 이데올로기 답습은 현실에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 3. 디지털 성범죄 보도 프레임

범죄 보도와 성범죄 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범죄 유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언론이 공중에게 이러한 성범죄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등장한 새로운 범죄 유형인 디지털 성범죄 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프레임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성식(200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요인은 개인적 수준보다 주위 관계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윤리 의식이었으며 원인이 되는 요인은 사이버의 하위문화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미디어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서강훈(2020, 3월)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접할수록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을 접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폭력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지만으로 가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운정(2019)은 여성 혐오와 남성의 성 권력에 대한 확인이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존의 성범죄와는 다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이성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된 성격적인 측면에 반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희정(2018)의 경우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한 여성 단체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불법 촬영물의 생산자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가 카르텔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영상물의 소비 행위가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야한 동영상 소비하는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 비하하고 희롱했던 대학생들의 대화 방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작년 모 가수가 자신과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 방에 유포한 것에서도 목격하였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야한 동영상으로 소비하는 문화와 그 인식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n번방의 경우 운영자이자 가해자인 이들이 텔레그램 속 자신들의 왕궁이 'n번방'에 참여한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의 성을 매개로 신처럼 그 세계를 군림했던 것을 보면 그 문화를 짐작하게 한다.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제1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는 디지털 성범죄를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며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의성과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n번방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n번방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에 만연했던 성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n번방 사건’이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기사들이 비정상적으로 과잉되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은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의 보도 기사의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레임이 현실을 수용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이슈에 대한 시각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에 있어 해당 언론사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 문제1. ‘n번방 사건’ 보도의 내용적 프레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연구문제 2>은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텔레그램 운영자들이 체포된 이후 한국의 주요 신문의 보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체포 전과 이후의 보도 프레임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제기하는 언론이 어떠한 의제를 설정하여 국면에 따라 보도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연구 문제2. ‘n번방 사건’ 보도는 국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 문제3>은 디지털 성범죄 보도에서 신문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보도 프레임이 영향을 받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각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을 대표하는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어떤 프레임을 적용해 보도했는지를 살펴보고 보수와 진보 이념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신문을 추가하여 성범죄를 젠더 성향의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류 언론사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 연구 문제3. ‘n번방 사건’ 보도의 언론사별 프레임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

### 제2절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기사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3개로 선정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국내 신문이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 프레임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홍지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이념적으로 다른 신문의 보도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선일보는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는 점, 한겨레는 진보 성향의 신문이자 해당 사건을 기획 보도 했다는 점에서 택하였다. 여성신문의 경우 젠더 성향을 가진 신문으로 사건의 보도 방식에서 주류 언론사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선정하였다.

## 2. 분석기간 및 분석범위

분석 기간은 ‘n번방 사건’이 최초 보도되었던 2019년 11월 25일을 기준으로 국민청원이 200만 명이 돌파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2020년 9월 18일까지로 선정하였다. 해당 기간은 n번방 운영자의 첫 검거가 이루어지며 보도량이 증가했던 3월 17일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5월 20일을 기점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중요한 시기마다 언론의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표 1. ‘n번방 사건’ 보도의 기간별 분류

국면/기간	내용
1단계 (2019. 11. 25~2020. 3. 16)	‘n번방 사건’ 기획 보도가 이루어짐
2단계 (2020. 3. 17~2020. 5. 19)	n번방의 운영자 ‘박사’와 ‘갓갓’의 체포,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등장으로 정책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3단계 (2020. 5. 20~2020. 9. 18)	‘n번방 방지법’ 정책 제정 및 시행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내용적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뉴스에 대한 독해와 해석을 통해 뉴스의 대상인 사건의 맥락을 탐색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찾아내기 위한 귀납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 방법은 프레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김영지, 2008; 홍지아, 2009; 양정혜, 2010; 최현주, 2010; 허석재·민영, 2010; 정의철·이창호, 2017; 유용민, 2017; 최종홍, 이호규, 2020, 김지주·권상희, 2020)에서 검증된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중심 역할, 핵심 주제를 발견하여 하나의 스토리의 가장 두드러지고 강조되는 메시지를 탐색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여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해 어떤 의미를 구성하여 프레임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프레임이 국면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추출된 프레임을 재분류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 제4장 연구결과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보도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사는 총 613건이었다. 전체 기사 건수에서 조선일보는 총 218건(35.6%), 한겨레는 총 172건(36.4%), 여성신문은 223건(36.4%)건으로 여성신문>조선일보>한겨레 순으로 나타났다. 국면별 기사 건수는 1국면 25건(4.1%), 2국면 417건(68.0%), 3국면 171건(27.9%)이었으며 2국면>3국면>1국면 순으로 보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력한 가해자로 이야기 되었던 운영자 ‘박사’의 검거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의 보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면별 언론사의 차이는 1국면에서는 한겨레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2국면에서는 조선일보, 3국면에서는 여성신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보다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언론사/국면 빈도 분석

		빈도	퍼센트
언론사	조선일보	218	35.6
	한겨레	172	28.1
	여성신문	223	36.4
국면	1국면	25	4.1
	2국면	417	68.0
	3국면	171	27.9
전체		613	100.0

표 3. 언론사/국면 교차분석

국면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1국면	3(1.4%)	14(8.1%)	8(3.6%)	25(4.1%)
2국면	169(77.5%)	116(67.4%)	132(59.2%)	417(68.0%)
3국면	46(21.1%)	42(24.4%)	83(37.2%)	171(27.9%)
전체	218(35.6%)	172(28.1%)	223(36.4%)	613
	100.0%	100.0%	100.0%	100.0%
$\chi^2=27.751, df=4, p=.000$				

### 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내용적 프레임

전체 ‘n번방 사건’ 관련 보도에서 내용적 프레임은 정보 제공 프레임, 인간흥미 프레임, 원인 프레임, 대응대책 프레임, 국민여론 프레임, 법적효과 프레임, 기타 프레임으로 상위 분류하였다. 하위 차원으로는 정보 제공 프레임에 통계 자료를 인용한 자료 조사 정보, 사건 관련 전반적 수사, 재판 과정을 이야기하는 수사/재판 과정 보도로 분류하였고 인간흥미 프레임의 경우 사건에 대한 세밀한 묘사인 사건 묘사, 가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기사에 언급하는 가해자 신상 보도, 가해자가 한 언행에 초점을 맞추는 가해자 언행 보도, 2차 가해/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어, 논조의 표현을 하는 2차 가해/피해 보도로 구분하였다. 원인 프레임에 해당

하는 것은 범죄의 영상물을 ‘야한 동영상’으로 답습하는 사회 문화를 사회 문화적 원인이라 하였고, 성인지감수성, 잘못된 성인식 등을 원인으로 하는 왜곡된 성인식, 네트워크의 특성과 속성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디지털 특성, 사회,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구분하였다. 대응 대책 프레임은 해외 플랫폼을 다른 수사국과 공조하는 국제 공조, 피해자들의 법과 제도적 지원 대응인 피해 지원, 가해자의 엄벌 촉구, 입법 강화를 주장하는 처벌 강화, 성인지감수성, 성인식 예방 등을 뜻하는 범죄 예방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국민여론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 청원, 시민 단체, 여성단체의 연대를 강조하는 프레임,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구분하였다. 법적효과 프레임은 n번방 방지법의 졸속처리·실효성 논란과 같은 n번방 방지법 논란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프레임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국회, 국회의원 등에 대한 비난과 비판,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n번방 사건으로 나타난 사회 문제로 분류하였다.

## 1. 정보 제공 프레임

정보 제공 프레임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개별 사건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사건의 발생을 사실 중심에서 기술적인 보도를 하는 프레임이라 명명하였다.

### 1) 자료 조사

자료 정보 조사는 통계나 수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가 지하철, 공공화장실 같은 공공장소(26.5%)보다 사적인 공간(63.4%)에서 많이 발생”(조선일보, 2019.12.30),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24%는 전 남편이나 연인”(한겨레, 2019.12.30) 등이 있다.

### 2) 수사/재판 과정 보도

수사 및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전반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마침내 붙잡힌 n번방 시초 ‘갓갓’(한겨레, 2020.5.11), “‘박사방’을 이용한 닉네임 개수 1만 5000개 확인했다”(여성신문, 2020.3.30), “n번방 영상 유포한 승려 검거”(조선일보, 2020.5.25), “제2n번방 징역 8년 선고”(조선일보, 2020.6.5) 등이 있다.

## 2. 인간 흥미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도함에 있어서 유발되는 개인에 대한 접근, 사실에 대한 자세한 상황 묘사로 2차 가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 등으로 분류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명명하였다.

### 1) 사건 묘사

사건 묘사는 사건 발생 과정에 있어서 세밀한 묘사로 자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

류하였다. “박00, 20살, 남자를 너무 밝힘, 능욕 부탁드립니다”(한겨레, 19,11,26), “가위로 실제 일부를 잘라라 등의 지시”(조선일보, 20,3,24). “‘박사방’의 캡처는 충격…인간의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는 복장과 자세...속이 메스껍고 충격”(여성신문, 20.3.20). 등의 예시가 있다.

## 2) 가해자 신상 보도

가해자 신상 보도는 가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성별 등을 기사에 언급하며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조씨가 지역의 학보사 기자 활동”(조선일보, 20,3,21), “조주빈…학보사 출신”(한겨레, 20,3,23), “‘낮엔 봉사, 밤엔 박사 'n번방' 조주빈의 두 얼굴”(조선일보, 2020,3,24) 등이 있다.

## 3) 가해자 언행

가해자 언행 보도는 가해자가 포털라인에서 한 언행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조주빈…손석희와 친분, 주진모 카톡도 있다”(여성신문, 2020,3,27) “일베(일간베스트 이용자)다, 대깨문(극성 대통령 지지자)다 말들이 많은데 돈 벌려고 한 일”(조선일보, 2020,3,31) 등이 있다.

## 4) 2차 가해/피해 보도

2차 가해 및 피해 보도는 언론의 보도가 2차 가해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와 논조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일탈계(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신체 일부만 찍어 업로드 하는 계정)에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 만남에 응하지 않았더라면...”(조선일보, 2020, 3, 26),

## 3. 원인 프레임

원인 프레임은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 정황에 대해 초점을 두며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보도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 1) 사회 문화적 원인

사회 문화적 원인은 성인 사이트의 ‘야한 동영상’을 소비하는 개념으로 해당 성 착취물을 소비하는 문화가 원인이라는 점과 기성세대의 성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교육 문화 등의 답습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여성 혐오 범죄…우리 사회의 ‘남성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준다”(여성신문, 20,3,25), “기성세대에게 배운 ‘남성연대’를 답습”(한겨레, 2020,4,13), “소라넷이나 에이브이스누프 같은 여러 불법 성인 웹사이트 방법을 모방했다”(조선일보, 2020,3,23) 등이 있다.

### 2) 개인의 왜곡된 성인식

“술먹고 ‘내가 N번방에 있었다’ 취지…나머지 일행 괜찮다 반응”(조선일보, 20.4.27), “양진호 웹하드 사건, 정준영 단독방 사건으로 … 남성 가해자들은 더 은밀한 공간을 찾게 된 것이다”(한겨레 2019, 11, 27), “n번방 실수로…”(조선일보, 2020.3.26), “불법 영상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역부족이다…”(한겨레, 19.12.17) 등이 있다.

### 3) 디지털 특성

디지털 특성은 보안성, 가상화폐, 마약 거래 등 불법적 범행을 도모하기에 유리한 플랫폼을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텔레그램 프라이버시의 역설”(한겨레, 2020.3.24). “텔레그램 뒤에 불법 도박장이 있었다”(한겨레 2020.5.15) 등이 있다.

### 4)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 처벌은 기존 사회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처벌 태도가 사건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솜방망이 처벌, 불법촬영물 유포 초범땀 거의 집유”(한겨레, 2019.11.28), “누가 제대로 처벌 받았나”(조선일보, 20.3.22), “솜방망이 구형”(여성신문, 2020.3.24) 등이 있다.

## 4. 대응대책 프레임

대응대책 프레임은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 정황에 대해 초점을 두며 사건에 대한 해결과 대책에 대한 보도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 1) 국제 공조

국제 공조는 해외 플랫폼 추적을 위한 다른 국가의 공조, 외교적 대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수사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외교적 협력을 통한 검거 작전”(조선일보, 2020.3.2) 등이 있다.

### 2) 피해 지원

피해 지원은 영상물, 피해 사실 등 피해자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및 대응으로 구분하였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조선일보, 20.1.11), 피해자 법적 진술 보호해야한다.”(한겨레, 2020.6.1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했다”(여성신문, 20.5.28)

### 3) 처벌 강화

처벌 강화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엄벌 촉구, 법과 제도적 강화를 대책으로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 추진”(한겨레, 2020.3.22.),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한겨레, 2020.5.22),

#### 4) 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성교육 등을 예방 대책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한겨레, 2020.4.30.), “n번방에 대한 성교육 사교육 성행하고 있다”(한겨레, 2020.5.27), “성평등, 성교육 등 근본적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여성신문, 2020.6.8)

#### 5.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은 해당 사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 1) 국민 청원

국민청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동의 표현을 촉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n번방 사건’의 국제 공조 수사 청원 … 동의했다”(여성신문, 2020.1.23),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조선일보, 2020.3.20), “n번방 국민청원 하루 만에 35만 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한겨레, 2020.3.19)

##### 2) 국민 연대

국민 연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집회, 운동을 통한 연대 강조, 여성의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리셋과 화난사람들…엄벌 요구 탄원서를 제출한다”(한겨레, 2020.5.11.), “여성들의 연대가 슬슬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n번방 방지법 제정은 디지털 성폭력과의 싸움의 시작”(여성신문, 20,5,23)

##### 3) 국민 분노

국민 분노는 디지털 성범죄와 n번방 사건으로 나타난 국민적 분노와 여성의 분노를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국민청원은 … 현실을 끊어내라는 여성들의 절규이자 온 국민의 분노”(한겨레, 20.3.22)

#### 6. 법적효과 프레임

##### 1)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법적효과 프레임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제도적 입법 과정과 제정 이후 나타난 법적 효과에 대하여 지적과 논의를 다룬 것으로 구분하였다. 청원 내용이 빠진 졸속 처리, 실효성, 역차별 등이 표현된다. “n번방 3법 통과 … 여전히 실효성 논란, 사적 검열 우려가 있다”(여성신문, 2020.5.20), “n번방 3법을 통해 텔레그램, 디스코드에 법률이 미치지 못한다”(여성신문, 2020.5.20)

## 7. 기타 프레임

기타 프레임은 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사건과 주제를 다루지 않거나 새로운 사건을 n번방과 연관 지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1) 국회 발언 논란 및 비판

국회 발언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문제시 삼고 있는 보도로 구분하였다. “일기장 가지고 처벌할 순 없지 않냐…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방관한다는 비판”(여성신문, 2020.3.25)

### 2) 새로운 사회 문제

새로운 사회 문제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과 문제, 도덕적 붕괴를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의대 교수가 직접 결백함을 증명했다”(여성신문, 2020.9.8), “사법 불신으로 세워진 ‘디지털 교도소’…논란에 휩싸였다”(여성신문, 2020.9.6)

표 4. 귀납적으로 도출된 프레임 유형

프레임 유형		분류기준	
내용적 프레임	정보제공 프레임	자료 정보 조사	통계, 수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정보 제공
		수사/재판 과정 보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처벌 과정에 대한 내용
	인간 흥미 프레임	사건 묘사	성 착취물, 사건 과정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자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가해자 신상 보도	가해자 이름, 나이, 직업, 성별 등을 기사에 언급하여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제공
		가해자 언행 보도	가해자가 포토라인에서 한 언행에 초점을 맞춘 보도
		2차 가해/피해	2차 가해/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어, 논조의 표현
	원인 프레임	사회 문화적 원인	성인 사이트의 ‘야동’의 개념으로 소비하는 문화, 기성세대에 잘못된 교육 문화 등이 원인
		왜곡된 성 인식	강한 남성, 잘못된 성 인식,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과 같은 왜곡된 성 인식
		디지털 특성	보안성, 가상 화폐, 마약 거래 등 불법적 범행을 도모하기에 유리한 플랫폼

		솜방망이 처벌	기존 사회, 사법부의 미온적 처벌 태도
대응대책 프레임		국제 공조	해외 플랫폼 추적을 위한 다른 국가의 공조, 외교적 대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수사 확대
		피해 지원	영상물, 피해 사실 등 피해자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및 대응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엄벌 촉구, 국회의 입법 강화
		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성교육 등을 예방 대책으로 제공
국민여론 프레임		국민 청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동의 표현, 요구
		국민 연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집회, 운동을 통한 연대 강조, 여성의 힘과 연대 표현
		분노 표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으로 나타난 국민적 분노, 여성의 분노를 강조
법적효과 프레임		n번방 방지법 논란	사건에 대한 입법에 대한 논의 중 청원에 대한 내용이 빠진 졸속 처리, 실효성, 역차별에 대한 지적
기타 프레임		국회 논란 및 비판	n번방 사건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 비판 및 비난
		사회문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과 문제, 도덕적 붕괴 강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체 기사 총 613건에서 정보제공 프레임은 169건(27.6%)이며 그 중 수사/재판 과정 보도가 159건(25.9%)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인간 흥미 프레임은 11건(18.1%)이며 가해자 언행 38건(6.2%), 사건 묘사 32건(26.1%), 가해자 신상 26건(4.2%), 2차 가해/피해가 15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 프레임은 65건(10.6%)으로 그중 솜방망이 처벌이 32건(5.2%)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원인이 13건(2.1%)이며 개인의 왜곡된 성인식과 디지털 특성은 10건(1.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응대책은 155건(25.3%)으로 나타났으며 처벌강화가 106건(17.3%), 피해 지원이 27건(4.4%), 범죄예방이 16건(2.6%), 국제 공조가 6건(1.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 촉구는 52건(8.5%)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청원이 21건(3.4%), 국민 분노가 17건(2.8%), 국민 연대가 14건(2.3%) 순으로 보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적효과는 총 23건(3.8%)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프레임은 38건(6.2%)으로 국회 논란과 비판이 23건(3.8%)으로 사회 문제 15건(2.4%)보다 높은 빈도수를 보

였다. 결과적으로 내용적 프레임은 정보제공>대응대책>원인>국민여론>기타>법적효과 순으로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프레임 유형별 빈도 분석

1차 프레임	2차 프레임	빈도	퍼센트
정보제공	자료 정보 조사	10	1.6
	수사/재판과정정보도	159	25.9
	전체	169	27.6
인간 흥미	사건 묘사	32	5.2
	가해자 신상	26	4.2
	가해자 언행	38	6.2
	2차 가해/피해	15	2.4
	전체	111	18.1
원인	사회 문화적 원인	13	2.1
	개인의 왜곡된 성인식	10	1.6
	디지털 특성	10	1.6
	솜방망이 처벌	32	5.2
	전체	65	10.6
대응대책	국제 공조	6	1.0
	피해 지원	27	4.4
	처벌 강화	106	17.3
	범죄 예방	16	2.6
	전체	155	25.3
국민여론촉구	국민 청원	21	3.4
	국민 연대	14	2.3
	국민 분노	17	2.8
	전체	52	8.5
법적 효과	n번방 방지법 실효성	23	3.8
기타	국회 논란 및 비판	23	3.8
	사회문제	15	2.4
	전체	38	6.2
전체		613	100.0

## 제2절 국면별 프레임 차이

국면별 1차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정보제공은 3국면으로 사건이 진행될수록 높은 빈도의 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가해자 검

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재판 과정을 흐름에 따라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 흥미의 경우 2국면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최초의 가해자가 검거되면서 그에 대하여 언론이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인 프레임의 경우 1국면>3국면>2국면 순으로 세 국면 모두 비슷하게 사건에 원인에 대하여 보도함을 알 수 있다. 대응대책의 경우 1국면과 2국면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은 1국면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된다고 보이며 법적효과를 할 구 국면에서

## 2. 인간 흥미 프레임

국면별 인간흥미 프레임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국면에서 사건묘사가 3건(100%)으로 나타났으며 2국면과 3국면에서는 가해자 언행이 26건(30.2%)과 12건(54.5%)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가 잡힌 이후 가해자가 포토라인에서 한 언행에 대한 보도가 두드러지게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국면에서 또한 사건에 대한 묘사가 24건(27.9%)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건 발생에 관하여 자극적인 언어 선택하여 선정적인 측면을 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국면별 인간 흥미 프레임

인간흥미	국면			전체
	1국면	2국면	3국면	
사건 묘사	3(100.%)	24(27.9%)	5(22.7%)	32(28.8%)
가해자 신상	0	22(25.6%)	4(18.2%)	26(23.4%)
가해자 언행	0	26(30.2%)	12(54.5%)	38(34.2%)
2차 가해/피해	0	14(16.3%)	1(4.5%)	15(13.5%)
전체	3	86	22	111
	100.0%	100.0%	100.0%	100.0%
$\chi^2=12.994, df=6, p=.043$				

## 3. 원인 프레임

국면별 원인 프레임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국면에서는 사회 문화적 원인과 디지털 특성 솜방망이 처벌이 1건(33.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국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21건(48.8%)이 가장 많은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국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원인이 10건(52.6%)으로 수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한 지적이 국면에 따라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n번방 사건에 핵심 인물들이 검거되면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다 보니 여전히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국면별 원인 프레임

원인	국면			전체
	1국면	2국면	3국면	
사회문화적 원인	1(33.3%)	7(16.3%)	5(26.3%)	13(20.0%)
왜곡된 성인식	0	7(16.3%)	3(15.8%)	10(15.4%)
디지털 특성	1(33.3%)	8(18.6%)	1(5.3%)	10(15.4%)
솜방망이 처벌	1(33.3%)	21(48.8%)	10(52.6%)	32(49.2%)
빈도	3	43	19	65
국면 중 %	100.0%	100.0%	100.0%	100.0%
$\chi^2=3.812, df=6, p=.702$				

#### 4. 대응 대책 프레임

국면별 대응 대책 프레임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국면은 국제공조가 4건(50.0%) 그리고 피해 지원과 처벌 강화가 2건(25.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국면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 대응,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국면에서는 처벌 강화 프레임이 84건(74.3%)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국면 역시 처벌강화가 20건(58.8%)으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인에서 나타났듯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들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피해지원은 2국면보다 3국면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영상물이 엄청난 양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0. 국면별 대응 대책 프레임

대응대책	국면			전체
	1국면	2국면	3국면	
국제공조	4(50.0%)	1(0.9%)	1(2.9%)	6(3.9%)
피해지원	2(25.0%)	16(14.2%)	9(26.5%)	27(17.4%)
처벌강화	2(25.0%)	84(74.3%)	20(58.8%)	106(68.4%)
범죄예방	0	12(10.6%)	4(11.8%)	16(10.3%)
전체	8	113	34	155
	100.0%	100.0%	100.0%	100.0%
$\chi^2=53.353, df=6, p<.000$				

#### 5.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

국면별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국면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청원의 보도가 많았다. 1국면에서 말하는 국민 청원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된 국민청원으로 해당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어 국회 1호 법안이 되었다. 1국면에서는 과연 해당 국민청원이 국회의 법안에 상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동의를 촉구하고 있었다. 2국면에서는 국민분노가 16건(40.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운영자가 검거가 되면서 해당 범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악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표현되었다. 3국면에서는 국민연대가 4건(66.7%)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국민연대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집회와 시위, 운동을 통해 국민이 힘을 모아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여성의 힘으로 디지털 성범죄 법 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표 11. 국면별 국민여론측구 프레임

국민여론측구	국면			전체
	1국면	2국면	3국면	
국민청원	6(100%)	14(35.0%)	1(16.7%)	21(40.4%)
국민연대	0	10(25.0%)	4(66.7%)	14(26.9%)
국민분노	0	16(40.0%)	1(16.7%)	17(32.7%)
전체	6	40	6	52
	100.0%	100.0%	100.0%	100.0%

$\chi^2=14.680, df=4, p=.005$

#### 6. 법적 효과 프레임

국면별 법적효과 프레임은 국면에 흐름에 따라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n번방 방지법이 실제로 통과하고 제도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해당 법안으로 n번방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통한 실효성 논란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면별 법적효과 프레임

법적효과	국면			전체
	1국면	2국면	3국면	
n번방 방지법 실효성	1	9	13	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 7. 기타 프레임

국면별 기타 프레임은 1국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2국면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과 비판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관련하여서 국회의원들은 범죄 행위를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나 ‘일기장에 그림 그리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표현들이 국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 논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까지 지적한다. 3국면에서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n번방 처벌을 놓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서 국민이 심판을 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를 통해 일부 죄가 없는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오는 허위정보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발견하면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있었다.

표 13. 국면별 기타 프레임

기타	국면		전체
	2국면	3국면	
국회 논란 및 비판	22(95.7%)	1(6.7%)	23(60.5%)
사회문제	1(4.3%)	14(93.3%)	15(39.5%)
전체	23	15	38
	100.0%	100.0%	100.0%
$\chi^2=30.090, df=1, p=.000$			

제3절 언론사별 내용프레임

언론사별 1차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정보제공은 조선일보가 78건 (35.8%)으로 한겨레와 여성신문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일보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인간흥미 프레임의 경우 조선일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자극적이고 세밀한 묘사나 가해자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조선일보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원인 프레임의 경우 여성신문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여성신문보다 사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국민 여론 촉구는 한겨레와 여성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법적인 효력에 대한 논란인 법적효과 프레임은 조선일보와 여성신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함을 알 수 있다. 기타 프레임의 경우 여성신문이 조선일보와 한겨레보다 높게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언론사별 1차 프레임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1차프레임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정보제공	78(35.8%)	37(21.5%)	54(24.2%)	169(27.6%)
인간흥미	56(25.7%)	26(15.1%)	29(13.0%)	111(18.1%)
원인	18(8.3%)	19(11%)	28(12.6%)	65(10.6%)
대응대책	36(16.5%)	57(33.1%)	62(27.8%)	155(25.3%)
국민여론촉구	11(5%)	19(11%)	22(9.9%)	52(8.5%)
법적효과	11(5%)	3(1.7%)	9(4%)	23(3.8%)
기타	8(3.7%)	11(6.4%)	19(8.5%)	38(6.2%)
전체	218	172	223	613
	100.00%	100.00%	100.00%	100.00%
$\chi^2=44.797, df=12, p<.000$				

1. 정보제공 프레임

언론사별 정보제공 프레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모두

수사/재판 과정의 보도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면별 정보제공 프레임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언론사별 정보제공 프레임

정보제공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자료정보조사	2(2.6%)	3(8.1%)	5(9.1%)	10(5.9%)
수사/재판과정보도	76(97.4%)	34(91.9%)	49(90.7%)	159(94.1%)
전체	78	37	54	169
	100.0%	100.0%	100.0%	100.0%
$\chi^2=2.978, df=2, p=.226$				

## 2. 인간 흥미 프레임

언론사별 인간흥미 프레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건 묘사를 18건(32.1%)으로 상대적으로 가해자 신상(30.4%)과 가해자 언행(36.8%)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의 역시 사건 묘사를 12건(46.2%)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즉 주류 언론사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사건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묘사하면서 사건을 공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반면 여성신문은 17건(58.6%)으로 가해자 언행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언론사별 인간 흥미 프레임

인간흥미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사건묘사	18(32.1%)	12(46.2%)	2(6.9%)	32(28.8%)
가해자신상	17(30.4%)	2(7.7%)	7(24.1%)	26(23.4%)
가해자 언행	15(26.8%)	6(23.1%)	17(58.6%)	38(34.2%)
2차 가해/피해	6(10.7%)	6(23.1%)	3(10.3%)	15(13.5%)
전체	56	26	29	111
	100.0%	100.0%	100.0%	100.0%
$\chi^2=20.852, df=6, p=.002$				

## 3. 원인 프레임

언론사별 원인 프레임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여성신문 모두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 이전에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n번방을 가능하게 했다는 시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개인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원인으로 강조하며 보도하였고 한겨레는 해외 플랫폼이나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디지털 특성

을 원인으로 강조하였다. 반면 여성신문은 이러한 성범죄를 가능하게 한 것을 사회 문화적인 원인으로 보도하였는데 사회 문화적인 원인에는 성 착취물을 야한 동영상으로 소비하는 문화라는 관점도 있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의 성 소비를 용인하는 문화가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17. 언론사별 원인 프레임

원인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사회문화적원인	2(11.1%)	4(21.1%)	7(25.0%)	13(20.0%)
왜곡된 성인식	5(27.8%)	2(10.5%)	3(10.7%)	10(15.4%)
디지털 특성	3(16.7%)	4(21.1%)	3(10.7%)	10(15.4%)
솜방망이 처벌	8(44.4%)	9(47.4%)	15(53.6%)	32(49.2%)
전체	18	19	28	65
	100.0%	100.0%	100.0%	100.0%
$\chi^2=4.574, df=6, p=.599$				

#### 4. 대응 대책 프레임

언론사별 대응대책 프레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모두 처벌강화에 대한 대책 논의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원인이 되는 사법부의 적절하지 않은 제도적인 처벌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절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겨레와 여성신문의 경우 피해자의 지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피해 지원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피해 영상물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표 18. 언론사별 대응대책프레임

대응대책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국제공조	1(2.8%)	2(3.5%)	3(4.8%)	6(3.9%)
피해지원	3(8.3%)	14(24.6%)	10(16.1%)	27(17.4%)
처벌강화	26(72.2%)	35(61.4%)	45(72.6%)	106(68.4%)
범죄예방	6(16.7%)	6(10.5%)	4(6.5%)	16(10.3%)
전체	36	57	62	155
	100.0%	100.0%	100.0%	100.0%
$\chi^2=6.664, df=6, p=.353$				

## 5.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

언론사별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국민청원에 대한 보도가 국민 분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국민 연대는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 국민 연대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신문은 국민 분노와 국민 청원을 두드러지게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의 경우 국민 분노를 n번방 사건에 대한 여성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언론사별 국민여론촉구프레임

국민여론촉구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국민청원	7(63.6%)	6(31.6%)	8(36.4%)	21(40.4%)
국민연대	0	9(47.4%)	5(22.7%)	14(26.9%)
국민분노	4(36.4%)	4(21.1%)	9(40.9%)	17(32.7%)
전체	11	19	22	52
	100.0%	100.0%	100.0%	100.0%

$\chi^2=9.268, df=4, p=.055$

## 6. 법적효과 프레임

언론사별 법적효과 프레임은 조선일보가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여성신문, 한겨레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효과 프레임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안이 과연 적합한지, 제대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이야기하면서 n번방 방지법이 해외 플랫폼을 규제한다기보다는 국내의 플랫폼만 규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성신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보도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그저 국회 법안으로 상정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라는 비판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의원들의 낮은 성인지적 발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물론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0. 언론사별 법적효과 프레임

법적효과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n번방 방지법 실효성	11	3	9	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 7. 기타 프레임

언론사별 기타 프레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의 경우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논란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번방 방지법의 법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하였던 것을 뒷받침한다. 한겨레의 경우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n번방 사건으로 나타난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보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겨레는 n번방 처벌을 놓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국민이 범죄자들을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고자 만들어진 민간 자경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이후 논란의 여지가 생기자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도 내용의 흐름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언론사별 기타 프레임

기타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국회 논란 및 비판	5(62.5%)	4(36.4%)	14(73.7%)	23(60.5%)
사회문제	3(37.5%)	7(63.6%)	5(26.3%)	15(39.5%)
전체	8	11	19	38
	100.0%	100.0%	100.0%	100.0%
$\chi^2=4.078, df=2, p=.130$				

##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 'n번방 사건'의 의미를 언론이 어떻게 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어떠한 프레임으로 채택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은 n번방 사건을 두고 다양한 프레임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국면은 대응대책 프레임과 국민 여론 촉구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번방과 관련된 국민 청원과 함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처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국면은 정보 제공 프레임과 대응 대책이 두드러지게 보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국면 역시 정보 제공 프레임과 대응 대책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n번방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언론사별 프레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는 정보제공 프레임과 인간 흥미 프레임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묘사나 가해자에 대한 신상, 언행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한겨레의 경우, 정보 제공 프레임과 대응 대책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신문은 대응대책 프레임을 강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n번방 사건을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보도를 분석하였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국면에 따라 나누었지만 각 국면의 일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10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큰 흐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코더가 1명이었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n번방 사건의 언론 보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 또한 젠더 신문인 여성신문을 포함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보도 연구와의 차별점을 갖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코더를 추가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n번방에 대한 의미 구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나 추출된 프레임들이 공중에게 명확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어떤 의제가 중요하게 판단되고 전달되는 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김수아·장다혜 (2019).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문화>, 34권 1호, 89-130.

김영지 (2008, 10월). 촛불집회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357-377.

김지주·권상희 (2020).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4권 2호, 5-43.

박용규 (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박지선·박상조 (2013). 내용분석을 통해 본 사이코패스 관련 언론 보도 실태 및 추세. <한국경찰연구>, 12권 4호, 175-200.

서강훈 (2020, 3월). 청소년의 인터넷 미디어 음짓      써월      레      성      금      디더      클

- 허석재·민영 (2010). 사이버모욕죄 보도의 프레임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48-68.
- 홍주현 (2018, 7월).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방송 보도의 선정성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7호, 103-119.
- 홍지아 (2009).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458-498.
- Entman, Rober M. (2004). Projections of power :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안병규 (역) (2013). <권력의 투사법: 뉴스 프레임. 여론. 미국의 대외 정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riedland, L. A. (2001). Communic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Toward a theory of the communicatively integrated community. *Communication research*, 28(4), 358-391.
- Gitlin, T. (2003).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uergen (1962). *Strukturwandel der Oe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einer Kategorie der Buerge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Verlag, Burger, Thomas, tras (1999). *The Structural Tra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he MIT Press. 한승완 (역) (2004).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출판.
- Iyengar, S.,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Semetko, H. A.,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